

중심통로와 주변통로 태도변화에서 태도의 구조적 차이*

이수원 · 이준호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 태도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이원구조로 표상되는 반면에,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는 양극구조로 표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태도변화의 이중통로이론을 제시한 Petty와 Cacioppo(1984)의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을 반복하여 연구한 결과 태도변화에서 그들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따라서 이 자료로부터 태도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첫째,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의 차원표상이 이원구조로 나타나는 반면에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는 양극구조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는 태도대상에 대한 지각이 서술적 의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는 평가적 의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태도 변화처치가 태도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였다.

개인의 태도는 두가지 서로 다른 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는 중심통로를 거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변통로를 거치는 것이다. 태도변화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가지 통로를 거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구체화시킨 사람은 Petty와 Cacioppo(1981)였다. 이들은 기존의 태도변화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변인들이 모두 중심통로와 주변통로중에 어느 한쪽 통로를 거쳐서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중심통로를 거쳐서 일어나는 태도변화는 설득메시지의 내용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이 통로에서는 사람들이 태도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

에 의해서 태도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태도변화의 크기는 사람들이 설득메시지에 제시된 정보를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숙지하는가, 이들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체계화시키는가, 그리고 이들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나 신념들을 얼마나 많이 생성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 한편 주변통로를 거쳐서 일어나는 태도변화는 설득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설득장면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주변단서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여기서 태도변화의 크기는 설득메시지와 결합되어 있는 정적 또는 부정 단서들에 달려 있다. 설득메시지가 쾌락이나 고통과 같은 일차적인 단서들이나 또는 신뢰롭고 매력적인 설득자와 같은 이차적인 단서들과 결합되어 있을 수록 태도변화가 잘 일어난다.

여기서 두 통로간의 기본적인 차이는 전자는 설득 메시지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의깊게 생각함

* 본 연구는 199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지원금을 받아 이루어졌다.

으로서 태도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제시된 메시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메시지와 함께 제시되는 설득단서들에 의해서 태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자는 설득메시지의 내용으로부터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인지를 생성함으로써 태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설득장면에서 주변적으로 제시되는 설득단서들에 영향을 받아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설득단서는 태도주제와는 관계없이 설득장면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을 가리킨다. 이들 요인들이 태도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가 없이도 태도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단서로서 작용할 때에는 설득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심통로에 의한 태도변화는 설득메시지에 대한 사고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변화인 반면에 주변통로에 의한 태도변화는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의 성질이 질적으로 같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Petty와 Cacioppo (1986)는 이 두 태도의 성질이 다르다고 보았다.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는 인지구조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는 인지구조에서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에는 태도대상에 대해서 기존에 미리 갖고 있던 신념에 설득메시지에서 제시된 새로운 신념이 추가되지만,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에 새로운 신념이 추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크며, 그리고 행동에 대한 예언력도 높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심통로에 의해서 변화된 태도가 주변통로에 의해서 변화된 태도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연구들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Chaiken, 1980; Chaiken & Eagly, 1983; Mackie, 1987). 이와 같은 결과는 태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지지되었다. 태도변화 장면

에서 태도주제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인지적 관여가 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Cook & Flay, 1978; Petty, 1977). 한편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심통로를 거친 태도가 주변통로를 거친 태도보다 행동의도를 더 잘 예언한다는 결과들도 나타났다(Leippe & Elkin, 1987; Pallak, Murrioni, & Koch, 1983).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개인차 변인을 조작한 연구에서도 인지적 욕구(need for cognition)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Cacioppo, Petty, Kao, & Rodriguez, 1986). 여기서 인지적 욕구가 높은 사람은 설득메시지의 질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결과도 중심통로를 거친 태도가 주변통로를 거친 태도보다 행동의 예언력이 높다는 위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태도의 강도에서만 본다면 전자는 강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약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후자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크며, 행동에 대한 예언력도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두 태도의 성질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인가? Petty와 Cacioppo(1986)는 그 원인을 인지생성 여부에서 찾았다.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는 태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지의 생성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지가 바뀌지 않는 한 태도도 바뀔 수 없는 반면에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는 설득상황에서 주변적으로 제시된 설득단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들 단서가 사라지면 이와 함께 태도도 바뀌게 된다고 보았다. 즉, 전자에서는 태도대상에 대한 인지에서의 변화를 토대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한' 태도가 되었으며, 후자에서는 인지변화없이 태도가 변하였기 때문에 '약한' 태도로 남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중심통로를 거쳐서 일어나는 태도변화는 '인지'에 기초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태도의 강도가 강하게 되는 반면에 주변통로를 거쳐서 일어나는 태도변화는 인지 외적 요인에 기초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태

도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에 Edwards(1990)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는 인지에 기초한 태도와 감정에 기초한 태도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그는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를 인지에 기초한 것으로 그리고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를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Petty와 Cacioppo(1986)의 정교화개연성(eraboration likelihood) 모델의 예언에 따라 태도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동기가 높을 때는 설득메시지에서 제시되는 인지 정보에 의해서 태도가 변화하지만 이것들이 낮을 때는 감정 단서에 의해서 주로 태도가 변화된다고 보았다. 정교화개연성 모델에서는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정교화개연성 수준에 따라 이 수준이 높을 때는 중심통로를 거쳐서 태도가 변화되지만 이 수준이 낮을 때는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정교화개연성 수준은 사람들이 설득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사고를 정교화시켜 새로운 인지를 많이 생성하는가를 가지고 지표화하였다. 정교화개연성 수준은 설득메시지를 처리하는 개인의 능력과 동기에 비례한다. 태도대상을 처리하는 개인의 능력과 동기가 높을 때는 설득메시지의 질(quality)과 같은 중심단서들에 의해서 태도가 변화되지만 그것들이 낮을 때는 설득메시지의 양(quantity)과 같은 주변단서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Edwards(1990)는 중심통로를 거친 태도 즉, 인지에 기초한 태도와 주변통로를 거친 태도 즉, 감정에 기초한 태도의 성질에 대해서는 Petty와 Cacioppo(1986)의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감정에 기초한 태도가 인지에 기초한 태도보다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확신도가 높고 태도의 강도도 더 강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 게 되면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보다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가 보다 오래 지속되며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크다고 보아야 한다. Zajonc(1980)는 일찌기 감정적 판단이 인지적 판단보다 자아관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이 이루어지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감정적 반응의

이러한 강도나 지속력이 모든 것을 의심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적 타당성(phenomenal validity)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감정적 반응에 대한 이러한 현상적 타당성 때문에 감정을 바꾸는 것이 인지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중 어떤 태도가 정말로 더 강한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의 태도구조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두 태도 사이에 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들간의 태도의 구조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들 두 태도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Petty와 Cacioppo(1986)의 정교화개연성 모델에서도 태도변화가 중심통로를 거칠 때와 주변통로를 거칠 때 태도구조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두 태도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태도변화가 중심통로를 거쳐서 일어날 때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일어날 때 태도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최근에 Cacioppo와 Bertson(1994)은 개인들의 태도구조가 양극구조와 이원구조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양극구조는 어떤 태도대상에 대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단일차원상에서 양극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태도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보게 된다. 반면에 이원구조는 이 두 태도를 서로 독립된 차원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태도를 서로 양립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이수원(1995)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관계를 양극구조로서 표상하는가 또는 이원구조로서 표상하는가는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조망확대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를 양극구조로서 표상하지만 조망이 확대되어 있을 때는 이원구조로서 표상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조망은 태도대상을 지각할 때 ‘인식의 틀’ 또는 준거를 말한다. 동일한 태도대상에 대하여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정 태도를 가진 사람간에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준거가 서로 다르다. 예컨대,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에서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의 준거는 ‘사회정의’ 가치인 반면에 부정 태도를 가진 사람의 준거는 ‘인도주의’ 가치가 된다. 사형제도를 사회정의 가치에 준거해서 보게 되면 정적 태도를 갖게 되며, 한편 인도주의 가치에 준거해서 보게 되면 부정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망이 축소되어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치중 한쪽 가치에만 준거해서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반면에 조망이 확대되어 있는 사람은 양쪽 가치에 준거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조망이 축소되어 태도대상을 한쪽 가치에 의해서만 바라볼 때에는 ‘인식의 절대화’가 일어나 자신의 태도가 자기의 조망에서 비롯된 산물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태도가 자신의 조망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태도대상 자체가 원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중 한쪽 태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반대쪽 태도에 대해서는 그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중 한쪽 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다른쪽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적태도와 부정태도를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일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망이 확대되어 태도대상을 양쪽 준거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와 같은 인식의 절대화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때에는 태도와 그 태도를 낳게 된 조망을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망이 확대되어 태도대상을 양쪽 준거에서 보게되면 태도가 조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조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각각의 태도가 시비차원에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각각의 태도는 적어도 각각의 조망에서는 모두 옳은 것이다. 물론 여기서 각각의 태도가 모두 옳다는 것은 각각의 조망에 구속되어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는 모두 옳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두 태도를 이렇게 조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됨으로서 이제 이들을 서로 대립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각각의 태도의 준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들 두 태도를 양립될 수 있는 이원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수원(1995)은 태도구조가 양극적인가 또는 이원적인가에 따라 태도대상에 대한 지각차원도 달라진다고 보았다. 태도구조가 양극적일 때는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는 반면에 이원적일 때는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한다. 여기서 서술적 의미는 사물의 양태를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의미이며, 평가적 의미는 사물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이다. 예컨대, ‘쓰레기’나 ‘암’과 같은 말은 그것들이 어떤 사물을 지칭한다는 서술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럽다나 싫다는 평가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태도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내에 정적 태도의 준거가치와 부정 태도의 준거가치를 함께 갖게 되면 준거가치의 차원이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태도대상 사형제도에 대해서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준거가치 차원이 ‘정의’ 가치 차원(불의하다-정의롭다)인 반면에 부정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인도’ 가치차원(비인도적이다-인도적이다)이다. 따라서 그들은 태도대상을 ‘불의하다-정의롭다’나 ‘비인도적이다-인도적이다’ 즉, ‘나쁘다-좋다’의 평가차원에서 보게 된다. 그리하여 전자에서 볼 때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으로서 ‘좋은 것’이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의한 것으로서 ‘나쁜 것’이다. 후자에서 보게 되면 이와 반대가 된

다. 이 때에는 '정의'가치나 '인도'가치의 의미가 평가적 의미로만 쓰인다.

그러나 조망이 확대되어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준거를 함께 갖게 되면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롭기는 하지만 비인도적이라고 보게 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인도적이기는 하지만 불의하다고 보게 된다. 즉, 이 때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정의'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제도인 반면에 후자는 '인도'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제도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정의가치와 인도가치의 서술적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그리하여 이렇게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지는 대상의 의미도 서술적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와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의 차이는 전자는 주어진 대상을 '정의롭다' 또는 '인도적이다'와 같이 가치속성에 따라서 지각하는 반면에 후자는 '좋다' 또는 '나쁘다'와 같이 호오속성에 따라서 지각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폐지하는 것은 인도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후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 것(또는 나쁜 것)이며 폐지하는 것은 나쁜 것(또는 좋은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정의와 인도중 어떤 가치가 보다 중요한가 즉, '가치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사형제도의 시행과 폐지중 어떤 제도가 보다 좋은가 즉, '호오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의 구조는 양극구조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의 구조는 이원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자에서는 조망의 축소가 일어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조망의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Petty와 Cacioppo(1986)는 태도가 중심통로를 거칠 때는 태도 대상에 대해서 기존에 미리 갖고 있던 신념에다가 설득메시지에서 제시된 새로운 신념을 추가시키는 누적

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여기서 설득메시지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신념은 기존의 신념과는 대립되는 역태도 신념이다. 따라서 태도가 중심통로를 거칠 때는 친태도 신념과 역태도 신념을 모두 함께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망의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태도가 주변통로를 거칠 때는 신념구조에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태도만이 변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친태도 신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가 중심통로를 거칠 때와 주변통로를 거칠 때 태도의 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은 중심통로를 거칠 때는 태도의 구조가 이원구조가 되는 반면에 주변통로를 거칠 때는 양극구조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태도의 구조가 이렇게 바뀔 때 따라 태도대상에 대한 지각차원도 바뀐다고 보았다. 즉, 주변통로를 거칠 때는 태도대상에 대한 지각이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중심통로를 거칠 때는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예언을 검토하기 위해서 Petty와 Cacioppo(1984)가 정교화개연성 모델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실험절차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태도주제에 대하여 자아관여수준이 높을 때는 설득메시지를 처리하려는 동기와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어진 메시지를 중심통로를 거쳐서 처리하는 반면에 자아관여수준이 낮을 때는 설득메시지를 처리하려는 동기와 능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주변통로를 거쳐서 처리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이들의 실험에서 자아관여수준이 높을 때는 중심단서인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 태도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이 수준이 낮을 때는 주변단서인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라 태도변화가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도 피험자들의 자아관여수준을 그들의 실험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의 처치도 그들이 사용한 방법대로 설득메시지의 질과 설득메시지의 양을 가지고 조작하였다. 다만 위에서 말한 태도구조의 차이를 측

정하기 위해서 몇가지 종속변인을 추가로 첨가시켰다.

방 법

피험자

사회교육원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240명을 피험자로 선발하였다. 이들은 8개의 실험집단에 30명씩 무선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중 약속을 해놓고 실험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해도 응답에 누락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시켜 최종 분석의 대상은 209명이었다.

독립변인의 처치

이 실험에서 독립변인의 조작은 Petty와 Cacioppo (1984)의 실험처치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들의 실험에서 사용한 태도주제가 대학졸업 종합시험제도의 시행이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도 보육교사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을 태도주제로 선정하였다. 모든 피험자에게 본 실험의 목적이 인상형성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보육교사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한 교육관련 인사가 작성한 건의문을 읽고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하였다. 본 실험에서 중심통로와 주변통로에 의한 태도변화 처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처치한 독립변인은 자아관련수준, 설득메시지의 질 및 설득메시지의 양의 세가지였다. 이들 변인의 처치는 지시문 및 건의문의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아관련수준 자아관련은 주제관여(issue involvement) 수준으로 조작했다. 보육교사 시험제도를 금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지시한 집단(고관여 집단)과 3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지시한 집단(저관여 집단)으로 나누었다. 지시문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 수급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학년도(고관여수준) 또는 1998학년도(저관여수준) 입학생부터 현재 각급 교육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형태로 개편하여, 모든 보

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중 5-10% 내외의 성적이 극히 미달되는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지시하였다.

설득메시지의 질 설득메시지의 질(quality)은 건의문의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건의문에서 제시되는 주장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따라 '강한 주장'과 '약한 주장'을 나누어 제작하였다. 제작에 따르는 모든 절차와 방법은 Petty와 Cacioppo (1984)가 제안한 기법에 따랐다. 강한 주장과 약한 주장을 각각 9개씩 모두 18개를 제작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설득메시지의 양 설득메시지의 양(quantity)은 건의문에서 제시되는 설득주장의 갯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3가지' 주장이 제시되는 집단과 '9가지' 주장이 제시되는 집단으로 나뉘었다. 여기서 제시되는 설득주장들은 설득메시지의 질에서 제작한 표 1에 나와 있는 것들이었다. 건의문에 나오는 설득주장들의 제시방법은 먼저 한 교육관련 인사가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자격시험제도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가 작성한 건의문에 내용을 발췌한 것을 제시해 주겠다고 말한 후 표 1에 나와있는 설득주장들을 항목별로 나열해서 제시하였다. 9가지 주장을 받게되는 집단에게는 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시했으며 3가지 주장만을 받게되는 집단에게는 표에 나와있는 것들 중에서 무선적으로 골라 제시하였다. 이 때 제시순서는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의 측정

보육교사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태도와 태도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서 태도평정척도, 정적/부적 태도척도 및 준거가치 분석척도를 제작하여 독립변인처치 직후에 실시하였다.

전체태도평정 이 평정은 보육교사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피

표 1. 보육교사 자격시험시행에 대한 강한주장과 약한주장들의 목록들

강한 주장	약한 주장
1. 이 제도의 도입은 보육교사의 실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1. 보육교사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제도는 교사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한다. 보육교사에게 그들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묻은 결과 80% 정도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 제도의 도입은 공공의 시험을 통한 등용을 신뢰하는 우리의 국민적 정서에 맞는 것으로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제도의 도입은 보육교사의 권위를 높여준다. 현재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3. 이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 이는 시험실시에 따라 각종 문제지 및 학원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이 제도의 도입은 보육교사직을 명실상부한 전문직으로 만들어 준다. 현재는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비전문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이 제도의 도입은 많은 제도적 보완 장치와 더불어 검토될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5. 이 제도의 도입은 보육교사자격증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 현재도 수만명의 보육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보육교사직을 구할 수 없어 자격증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5.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서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6. 이 제도의 도입은 각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학습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 현재 무조건 졸업만 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태한 경향이 있다.	6. 이 제도의 도입은 교육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가적 지상과제와 관련해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이다. 이는 교육 선진국들이 무엇보다도 영유아기의 교육을 중시하는 것을 볼 때 이해 가능할 것이다.
7. 이 제도의 도입은 보육교사직에 대한 불신을 제거한다.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실력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따라서 자녀교육을 염려하고 있다고 조사 대상자의 70%가 응답하고 있다.	7. 이 제도의 도입은 여타 직종의 전문화 추세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직종을 전문직종으로 재창출하게 되는 제도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8. 이 제도의 도입은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설 기관의 본격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8. 이 제도의 도입은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식교육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목적을 성취하게 한다.
9. 기존의 보육담당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가 그 시험을 통해서 취득한 자격증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9. “보육교사자격시험”의 준비과정은 인생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경쟁에 대한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험자들의 보육교사 자격시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정도를 ‘매우 찬성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4)까지의 9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정적/부적 태도척도 보육교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분리해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여기서 정적 태도척도는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긍정적으로 기술한 진술문 6개(적당한 긴장을 통

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다, 보육교사직을 전문적으로 만든다,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보육교사직의 사회적 권위를 높인다, 자격증의 남발을 막아 교사처우를 높여준다, 공부한만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로 구성되었으며, 부적 태도척도는 부정적으로 기술한 진술문 6개(심리적 압박감을 준다,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학습분위기를 해친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품성에는 소홀하게 된다, 단순 암기

위주의 교육을 조장한다, 학습에 피동적이 되게 만든다, 획일화된 인간을 길러낸다)로 구성되었다. 이들 진술문 각각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4)부터 매우 반대한다(-4)까지의 9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준거가치변별척도: 보육교사 자격시험에 대한 태도형성에서 준거로 삼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 척도는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준거가치 즉, '전문성' 가치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준거가치 즉, '전인성' 가치들을 가지고 의미분척도를 만들었다. 여기서 전문성가치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정된 차원은 "교직의 전문성이 확보된다-교직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자격증에 권위를 높혀준다-자격증에 권위가 없다", "교직에 자부심을 갖게된다- 교직에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 "실력있는 교사를 양성한다- 실력없는 교사가 양산된다", "능력향상의 자극제가 된다-능력향상의 자극제가 되지 못한다"의 5개였다. 한편 전인성가치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정된 차원은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다-폭넓은 공부를 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타율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다양성 있는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단편적인 지식만을 획득한다", "학습분위기가 협조적이다-학습분위기가 경쟁적이다", "주입식 교육에서 해방된다-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의 5개였다. 이들 차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여 전문성과 전인성의 두 요인으로 묶인 것들을 추출한 것이다. 이들 10개의 차원에서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과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의 두가지 태도주제에 대해서 각각 평정시켰다. 평정은 -4에서 +4까지의 9점척도상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의 반응은 그림 1에서처럼 전인성 가치, 전문성 가치, 평가차원 및 서술차원의 네가지 변별값을 피험자 개인별로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 그림에서 각 가치차원의 점수는 5개의 하위차원들을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다. 그림에 제시된 점수는 원래 -4에서 +4까지의 점수를 0에서 8

까지의 점수로 환척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두 태도주제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인성과 전인성 차원에서의 개인별 평정점수들을 그림에서와 같이 좌표화하였다. 그림 1에서 전인성차원 변별값 y는 두 태도주제를 전인성 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얻어진 거리이다. 이 거리는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인성차원에서의 평정점수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인성차원에서의 평정점수를 뺀 차이점수로 계산되었다. 이 변별값은 두 태도주제가 전인성 가치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전문성가치 변별값 x는 두 태도주제를 전문성 가치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얻어진 거리이다. 이 거리는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 차원에서의 평정점수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문성 차원에서의 평정점수를 뺀 차이점수이다. 이 변별값은 두 태도주제가 전문성가치 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평가차원 변별값 y'는 그림에서 좌표점 0, 0에서 8, 8을 잇는 차원에 두 태도주제를 투영시켰을 때 얻어진 거리이다. 이 차원에서 좌표점 0, 0은 '비인격적이다'와 '비전문적이다'로 대표되며, 좌표점 8, 8은 '인격적이다'와 '전문적이다'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이 차원은 '나쁘다'에서 '좋다'까지의 평가차원을 나타낸다. 평가차원 변별값은 이 차원에서 두 태도주제가 평가적으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서술차원 변별값 x'는 좌표점 0, 8과 좌표점 8, 0을 잇는 차원에 두 태도주제를 투영시켰을 때 얻어진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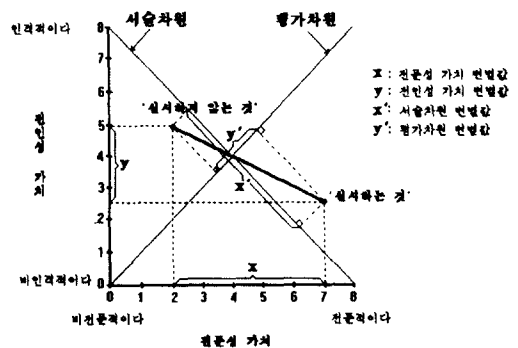


그림 1.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준거차원 변별값

이 차원에서 좌표점 0, 8은 '인격적이다'와 '비전문적이다'로 대표되며, 좌표점 8, 0은 '전문적이다'와 '비인격적이다'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이 차원은 '전문적이다'에서 '전인적이다'까지의 서술차원을 나타낸다. 서술차원 변별값은 이 차원에서 두 태도주제가 서술적으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각 차원에서 변별값이 클수록 그 차원에서 두 태도주제를 변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두 태도주제를 그 차원에 준거해서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절 차

이 실험은 자아관여수준(2)×설득메시지의 질(2)×설득메시지의 양(2)의 8개 집단별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은 실험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에 앞서 주어진 지시문에서는 본 실험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으로서 위장하였다. 구체적인 지시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인상을 형성할 때 여러가지 단서를 이용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또는 대화를 통해서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인의 의견을 통해서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제시된 의견은 한 교육관련 인사가 '보육교사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보육교사 자격시험 제도의 시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년부터 보육교사 수급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학년도(또는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현행의 교육기관별로 실시되고 있는 보육교사 졸업시험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형태로 바꾸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는 한 교육관련 인사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인상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인상을 형성하기 전에 먼저 그의 주장을 완전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가 끝난 후 한 교육관련 인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의문을 배부해 주었다. 이 건의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10분간의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나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타인에 대한 인상평정, 전체태도평정, 정적/부적 태도 척도 및 준거가치 분석척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실험에 소요된 전체시간은 대략 40분 정도 걸렸다.

결 과

태도의 변화

Petty와 Cacioppo(1984)의 실험에서 피설득자가 태도주제에 대해서 자아관여수준이 높을 때는 태도가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 변화되는 반면에 자아관여수준이 낮을 때는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라 변화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여기서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은 중심통로를 거쳐서 처리된다는 것이며,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주변통로를 거쳐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자아관여수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표 2는 고관여조건에서 설득메시지의 질과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태도점수는 위의 측정도구란에 나와있는 전체태도평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표에 나와있는 점수는 보육교사 자격시험제도에 대하여 원래의 척도점수를 1점(매우 반대한다)~9점(매우 찬성한다)의 척도로 환적하여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면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 강한 주장에서 약한 주장에서보다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05)=10.78, p<01$). 또한 설득메시지의 질과 양 사이에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2. 고관여조건에서 설득메시지의 질과 양에 따른 전체 태도의 평균(표준편차)

		설득메시지의 양	
		9개 주장	3개 주장
설득메시지의 질	강한 주장	7.22(1.42) (n=27)	7.50(1.36) (n=26)
	약한 주장	6.86(1.92) (n=29)	5.56(2.29) (n=27)

표 3. 저관여조건에서 설득메시지의 질과 양에 따른 전체 태도의 평균(표준편차)

		설득메시지의 양	
		9개 주장	3개 주장
설득메시지의 질	강한 주장	8.12(1.11) (n=26)	6.81(1.44) (n=27)
	약한 주장	7.36(1.32) (n=25)	6.18(2.30) (n=22)

여 강한 주장과 약한 주장간의 이와 같은 차이가 9개 주장에서보다 3개 주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F(1,105)=5.28, $p < .05$]. 그러나 설득메시지의 양 즉, 9개 주장과 3개 주장에 따라서는 태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F(1,105)=2.42, n.s.].

표 3은 저관여조건에서 설득메시지의 질과 양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라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3개 주장에서보다 9개 주장에서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F(1,96)=15.57, $p < .001$].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서 강한 주장과 약한 주장간의 유의한 차이도 나왔다[F(1,96)=4.86, $p < .05$]. 약한 주장보다 강한 주장에서 찬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Petty와 Cacioppo(1984)의 고관여조건에서는 중심통로를 거치기 때문에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 태도가 변화하며, 저관여조건에서는 주변통로를 거치기 때문에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라 변화한다는 주장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이다. 고관여조건에서 설득메시지의 질과 양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와 그들의 예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지만, 설득메시지의 양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예언과 반대되는 결과는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또한 저관여조건에서도 설득메시지의 양 뿐만 아니라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서도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른 차이가 질에 따른 차이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도 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도구조의 변화

Katz, Wackenhut 및 Hass(1988)는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이원적인가 또는 양극적인가를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동일한 준거가치에서 형성되는가 또는 상이한 준거가치에서 형성되는가를 가지고 지표로 삼았다.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기초해서 형성될 때에는 이들 두 태도가 시각을 달리해서 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음으로 서로 양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내에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서로 상이한 준거가치에 입각해서 형성할 때에는 이들 두 태도를 이원구조로서 표상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동일한 준거에 기초해서 형성될 때는 이들 두 태도를 양립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한 개인내에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동일한 준거가치에 입각해서 형성할 때에는 이들 두 태도를 양극구조로서 표상하게 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표 4에서는 높은 자아관여수준에서 정적/부적 태도와 전인성/전문성 준거가치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전인성 준거가치와 전문성 준거가치는 실제로 앞의 방법론에서 준거가치 분석척도에서 얻어진 전인성가치 변별값(y)과 전문성가치 변별값(x)을 가지고 사용하였다. 준거가치 분석척도는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는 것'의 서로 대립되는 두 태도주체를 정적 태도의 준거인 '전인성' 가치와 부적 태도의 준거인 '전문성' 가치중 어떤 가치에 준거해서 변별하는가를 분석하는 척도이다. 즉,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전인성 가치에 준거해서 지각하는가 또는 전문성 가치에 준거해서 지각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표 4에서 보면 정적 태도는 전문성 가치와 정상관이 높게 나오고 있다. 전인성 가치와도 역상관이 나오지만 전문성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 반면에 부적 태도는 전인성 가치와만 정상관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 가치와는 상관이 나오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정적

표 4. 고관여조건에서 정적/부적 태도와 전인성/전문성 가치간의 상관관계

	부적 태도	전문성 가치	전인성 가치
정적 태도	-.18	.46**	-.24*
부적 태도		-.09	.22*
전문성 가치			-.19

* p<.05, ** p<.01

표 5. 저관여조건에서 정적/부적 태도와 전인성/전문성 가치간의 상관관계

	부적 태도	전문성 가치	전인성 가치
정적 태도	-.29*	.52**	-.39*
부적 태도		-.26*	.48**
전문성 가치			-.37**

* p<.05, ** p<.01

태도와 부적 태도가 대체로 서로 다른 가치에 준거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적 태도는 전문성 가치에 준거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부적 태도는 전인성 가치에 준거해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추세가 부적 태도에서는 깨끗하게 나왔지만 정적 태도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다. 정적 태도에서는 전인성 보다는 전문성 가치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쪽 가치가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연구에서 설정한 예언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의해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뒷바침하는 사실은 이 조건에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상호 독립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에서는 저관여조건에서 정적/부적 태도와 전인성/전문성 준거가치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면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오고 있다.

표 6. 고관여조건에서 전체 태도에 대한 정적/부적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R ²	R ² change	B	β	t	r
정적 태도	.26	.26	.83	.49	5.76**	.51**
부적 태도	.27	.01	-.08	-.08	.96	-.17

* p<.05, ** p<.01

정적 태도는 전문성 가치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그리고 전인성 가치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부적 태도는 이와 반대로 전인성 가치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그리고 전문성 가치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왔다.

이 결과는 저관여조건에서 전문성 또는 전인성 가치중에서 한쪽의 가치에 준거해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성 가치에 준거할 때에는 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부적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한편 전인성 가치에 준거할 때에는 이와 반대로 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부적 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치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을 뒷바침하는 것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간의 역상관관계가 나온다는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 결과는 두 태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서 상반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고관여조건에서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저관여조건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결과는 이 두 태도를 가지고 전체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때에도 뒷바침되고 있다. 표 6은 고관여조건에서 전체태도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량을 강제투입방식에 의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정적 태도가 전체 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26%에 이르는 반면에 부적 태도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량은 단지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고관여조건에서는 전체 태도에서의 변화가 정적 태도에서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득메시지의 방향이 보육교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주장하는 정적 방향임을 고려할 때 예상대로 나와준 것이다. 고관여조건에서는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독립적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설득메시지 방향의 태도

표 7. 저관여조건에서 전체 태도에 대한 정적/부적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R ²	R ² change	B	β	t	r
정적 태도	.23	.23	.62	.43	4.78**	.48**
부적 태도	.27	.04	-.22	-.22	2.50*	-.32**

* p<.05, ** p<.01

즉, 정적 태도만이 전체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 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관여조건에서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7에서 보면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모두 전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관여조건에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서로 역상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역상관 관계가 전체 태도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의 서론에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양극구조로 표상할 때는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게 되고, 이원구조로 표상할 때는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이 예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앞의 측정도구에서 소개된 준거가치 분석척도에서 얻어진 자료에 토대해서 피험자들의 서술차원 변별값(x')과 평가차원 변별값(y')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평가차원 변별값은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는 것'의 두 태도주제를 '나쁘다-좋다'의 평가차원상에서 얼마나 서로 대립된 것으로 변별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서술차원 변별값은 두 태도주제를 '전인적이다-전문적이다'의 서술차원상에서 얼마나 서로 대립된 것으로 변별하는가를 나타낸다. 즉, 전자는 두 태도주제를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대립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후자는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대립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변별값이 클수록 주어진 의미차원에서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은 고관여조건에서 보육교사 자격시험에 대한 전체 태도가 평가차원 변별값과 서술차원 변별값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량을 강제투입방식에 의해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보면 서술차원 변별값이 전체 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12%가 나오는 반면에 평가차원 변별값이 설명하는 변량은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두 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차원 변별값도 전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상관계수의 결과에서는 서술차원 변별값이 .34가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에 평가차원 변별값은 .19가 나와 유의하지 않았다.

저관여조건의 결과는 이와 반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는 저관여조건에서 평가차원 변별값과 서술차원 변별값이 전체 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다. 저관여조건에서는 두 변별값이 전체 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이 고관여조건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평가차원 변별값은 전체 태도를 4% 정도 설명하는 반면에 서술차원 변별값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고관여조건에서는 전체 태도가 평가차원 변별값보다 서술차원 변별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큰데 반하여 저관여조건에서는 서술차원 변별값보다 평가차원 변별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고관여조건에서는 태도구조가 이원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태도가 평가적 의미보다 서술적 의미에 의해서 결정되며, 한편 저관

표 8. 고관여조건에서 전체 태도에 대한 평가차원/서술차원 변별값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R ²	R ² change	B	β	t	r
서술차원 변별값	.12	.12	.32	.34	3.68**	.34**
평가차원 변별값	.16	.04	.22	.19	2.06**	.19

* p<.05, ** p<.01

표 9. 저관여조건에서 전체 태도에 대한 평가차원/서술차원 변별값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R ²	R ² change	B	β	t	r
평가차원 변별값	.04	.04	.18	.20	1.90	.20
서술차원 변별값	.04	.00	.02	.03	.26	.01

* p<.05, ** p<.01

여조건에서는 태도구조가 양극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태도가 서술적 의미보다는 평가적 의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와 같은 해석은 저관여조건 결과의 경향성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태도변화가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 태도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중심통로와 주변통로에 의한 태도변화에서 Petty와 Cacioppo(1984)의 이중통로모델에서 예언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태도주제에 대한 개인의 자아관여수준이 높을 때는 중심단서인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 태도가 변화되는 반면에 자아관여수준이 낮을 때는 주변단서인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라 태도가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자아관여수준이 높을 때는 중심통로를 통하여 태도가 변화하며, 자아관여수준이 낮을 때는 주변통로를 통하여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이들의 예언이 거듭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태도가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 그들의 태도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중심통로를 거칠 때와 주변통로를 거칠 때 태도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자에서는 태도구조가 이원구조가 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양극구조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양극구조란 어떤 태도대상에 대한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를 단일차원상의 양극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태도를

서로 배타적이고 상반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한편 이원구조란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각기 독립된 차원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태도를 독립적이고 상호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태도변화가 중심통로를 거칠 때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주변통로를 거칠 때는 두 태도가 동일한 하나의 준거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심통로를 거쳐 태도가 변화하는 고관여조건에서 정적 태도는 전인성과 전문성의 두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전문성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 태도는 전인성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관여조건에서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비교적 독립적 준거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으로서 두 태도를 동일한 태도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 본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주변통로를 거쳐 태도가 변화하는 저관여조건에서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전인성 또는 전문성 가치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성 가치에 준거할 때는 정적 태도에 찬성하고 부정 태도에 반대하며 전인성 가치에 준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저관여조건에서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치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간의 상관관계도 전자에서는 상관없이 두 태도가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난 반면에 후자에서는 역상관 관계가 나타나 두 태도가 서로 상반적인 관계에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중심통로를 거칠 때와 주변통로를 거칠 때 태도대상에 대한 의미지각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하는

것이였다. 태도구조가 이원구조일 때는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는 반면에 양극적일 때는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도 고관여조건에서 변화된 태도는 서술차원 변별값에 의한 설명변량이 평가차원 변별값보다 크게 나왔으며, 저관여조건에서 변화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평가차원 변별값에 의한 설명변량이 서술차원 변별값보다 크게 나왔다. 이 결과는 고관여조건에서는 태도구조가 이원구조가 되기 때문에 태도가 서술적 의미에 의해서 결정되며, 저관여조건에서는 양극구조가 되기 때문에 태도가 평가적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태도변화가 중심통로를 거칠 때와 주변통로를 거칠 때 이들간의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같을지라도 그 기저에 있는 태도구조는 같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태도변화가 중심통로를 거처서 일어날 때와 주변통로를 거처서 일어날 때 태도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나타났다. Greenwald(1968)는 그의 인지반응이론에서 사람들은 설득메시지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설득메시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많은 새로운 인지를 생성해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되는 인지들 중에는 설득 메시지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도 있지만 비호의적인 것도 있다. 여기서 설득메시지의 질이 높을수록 호의적인 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태도가 이 메시지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지만, 설득메시지의 질이 낮을 때는 비호의적인 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오히려 기존의 태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설득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인지생성과정을 새롭게 생성되는 인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들과 교체되는 '교체적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있던 인지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인지들에 누적되는 '누적적 과정'으로서 이해하였다. 여기서 교체적 과정은 설득메시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인지들이 기존의 인지들과 대체된다고 보는 것이며, 누적적 과정은 새로운 인지들이 기존의 인지들에 포괄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전통을 이어받은 Petty와 Cacioppo(1986)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중심통로를 거처서 변화된 태도는 기존의 신념들에 새로운 신념들이 통합되어 신념구조가 복잡해 지는 반면에 주변통로를 통해서 변화되는 태도는 기존의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에 비하여 단순하다고 보았다.

또한 최근에 McGuire와 McGuire(1966)는 '내부로부터의 설득'(persuasion-from-within)접근에서 개인의 태도는 외부의 설득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정보들에 의해서도 변화되지만, 그의 사고체제속에 이미 갖고 있던 정보중에 어떤 한 정보가 그 순간 현저하게 되어 그의 사고가 그쪽으로 전환됨으로서 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사고체제 속에는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적 및 부적 정보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하여 이들 정보중에 어떤 정보가 그 순간 주의의 초점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의 태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중심통로를 거칠 때 태도구조가 이원구조로 나타나는 원인은 설득메시지를 통하여 생성되는 새로운 인지들이 기존의 인지들에 누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적 태도의 준거와 부적 태도의 준거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태도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태도의 구조가 이원구조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태도의 구조가 이렇게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은 태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수원(1995)은 최근에 태도구조의 발달과정이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변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양극구조는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구조인 반면에 이원구조는 조망이 확대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구조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조망은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정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다르다. 보육교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전문성' 가치에 준거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부정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전인성' 가치에 준거해서 태도를 형성한다. 여기서 조망이 축소되어 전문성과 전인성의 두 가치중 한쪽 가치에만 준거해서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를 판단하게 되면 이들 두 태도를 양극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전문성 가치에서 볼 때에는 정적 태도는 좋은 것이며 부정 태도는 나쁜 것이다. 한편 전인성 가치에서 볼 때에는 이와 반대가 된다. 따라서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를 한쪽은 좋고 다른쪽은 나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태도를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양극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망이 확대되어 전문성과 전인성의 양쪽 가치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볼 때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를 한쪽이 좋고 다른쪽이 나쁘다고 보지않게 된다. 두 태도가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적 태도를 갖게 되며 전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정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태도를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원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태도가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 서로 상이한 태도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심통로에 의한 태도변화에서 피험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던 새로운 인지들을 생성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에 갖고있던 인지들에 새롭게 생성된 인지들을 누적시킴으로서 정적 태도의 조망과 부정 태도의 조망을 함께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심통로와 주변통로에 의한 태도구조가 이렇게 이원구조와 양극구조로 나누어진다면 이러한 구조에 기초해서 나타나는 태도의 성질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Petty와 Cacioppo(1986)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심통로를 거친 태도는 주변통로를 거친 태도보다 태도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았다. 전자는 후자보다 오래 지속되며, 설득에 저항력도 크

며, 행동의 예언력도 높다고 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태도구조가 중심통로를 거칠 때는 이원구조가 되고 주변통로를 거칠 때는 양극구조가 된다면 이러한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태도의 성질은 그들의 예언과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가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보다 오히려 태도의 강도가 약하게 된다. 왜냐하면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에는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보다 태도가 개인의 성향보다는 상황에 기초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태도구조에서의 차이는 태도대상에 대한 지각차원도 바뀌게 한다. 양극구조에서는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게 하는 반면에 이원구조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게 한다. 여기서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가치의 평가적 의미 즉, '좋다' 또는 '나쁘다'로 인식하는 것이며, 서술적 의미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가치의 서술적 의미 즉, '전문적이다' 또는 '전인적이다'로 인식하는 것이다.

평가적 의미로 인식하는 것은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것(또는 나쁜것)이며, '실시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또는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서술적 의미로 인식하는 것은 '실시하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며,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전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찬반의사 결정이 '호오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가치선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원구조에서는 태도대상에 대한 찬반의사 결정이 가치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주어진 상황이 전문성 가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실시하는 것'에 찬성을 하며, 그렇지 않고 전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실시하지 않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에 기초한 태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기초한 태도는 양극구조에서 태도대상 자체가 '좋은 속성' 또는 '나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없는 '성향에 기초한 태

도'보다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자아관여(ego involvement)가 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중심통로를 거쳐서 태도의 구조가 이원구조가 되면 자아가 덜 개입되기 때문에 주변통로를 거쳐서 태도의 구조가 양극구조가 될 때보다 태도의 강도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개인의 태도구조를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바뀌게 하는 태도변화처치의 조건을 찾는 것이었다. 기존의 태도변화 연구들에서는 태도변화 처치의 효과를 태도의 양적 변화 즉, 찬반차원에서의 위치의 이동에 치중해 분석하였다. 태도구조에서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태도변화 처치는 태도의 방향에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태도의 구조에서의 변화도 동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태도변화 처치는 그 성질상 역태도 주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설득자들은 태도변화 처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태도와 반대되는 주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태도변화 처치는 태도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역태도 정보에 노출을 통해서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조망의 확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태도변화 처치가 태도의 구조를 바꾼 사례는 이수원과 이영훈(1989)의 태도면역에 관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담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긍정적 정보만을 갖고 있는 태도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한 집단에게는 부정적 정보를 주고 이를 반박하는 훈련을 시켰으며, 다른 집단에게는 긍정적 정보를 주고 이를 옹호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런 후, 이담기를 공격하는 설득을 하였을 때 반박집단에서는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었으나 이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옹호집단에서는 양쪽 태도가 모두 바뀌었다. 즉, 옹호집단에서는 두 태도를 양극적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이안담기 태도가 바뀔 때 이담기 태도도 바뀐 반면에 반박집단에서는 두 태도를 이원적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인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만이 바뀌고 이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태도변화 연구에서 이루어진 태도변화 처치가 모두 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Festinger (1957)의 인지부조화에 관한 태도변화 실험에서는 태도변화가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태도변화 처치가 태도의 구조를 이원구조로 만드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태도변화 처치가 언제 태도구조를 이원적으로 만들고 언제 양극적으로 만드는가의 조건은 설득메시지를 통하여 생성되는 새로운 인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들에 누적되는가 또는 교체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태도변화 처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지정보가 누적된다면 태도의 구조가 이원구조로 바뀌는 반면에 교체된다면 양극구조로 그대로 남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지들이 기존의 인지들에 언제 누적되며, 언제 교체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태도가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 누적되며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될 때 교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연구에서 설정한 예언을 뒷받침하기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여조건에서 태도와 준거가치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 부적 태도는 전인성 가치와만 상관이나 예언을 지지하였지만 정적 태도는 전인성과 전문성의 두 가치 모두에서 상관이나 예언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태도와 평가차원/서술차원 변별값간의 회귀분석에서도 고관여조건에서는 예언대로 나왔으나 저관여조건에서는 경향성만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관성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실험처치에서 제기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실험에서 중심통로와 주변통로로의 태도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조작한 자아관여수준의 처치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태도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대체로 Petty와 Caccioppo(1984)의 예

언을 지지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그들의 예언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예언에 따르면 고관여조건에서는 태도가 설득메시지의 질에 따라서만 변화되어야 하는데 질과 양의 상호작용효과도 나왔다. 또한 저관여조건에서 이상적인 결과는 태도변화가 설득메시지의 양에 따라서만 일어나야 하는데 질에 따라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볼 때 실험에서 중심통로와 주변통로 태도 변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아관여수준의 조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사실 높은 자아관여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중심통로를 거쳐서 태도가 변화되고 낮은 자아관여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주변통로를 거쳐서 태도가 변화해야 된다는 주문은 자아관여수준 자체가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문이다. Petty와 Cacioppo(1984)의 원래의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이상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의도가 그들의 실험을 가능한한 똑같이 복제하여 그들이 미처 관심을 갖지 않았던 태도구조의 차이를 보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태도가 중심통로를 거쳐서 변화되는 조건과 주변통로를 거쳐서 변화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 때 연구에서 나타난 비일관적인 결과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수원(1995).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개인내 태도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4, 1, 1-32.
- 이수원 박영석 (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회지, 4, 1, 155-188.
- 이수원 이영훈 (1989). 태도의 면역기제: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8, 1, 67-87.
- Cacioppo, J. T., & Berntson, G. G.(1994).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evaluative space: A critical review, with emphasis on the separability of positive and negative substrates, *Psychological Bulletin*, 115, 401-423.
- Cacioppo, J. T., Petty, R. E., Kao, C. F., & Rodriguez, R.(1986).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persuasion: An individual difference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32-1043.
- Chaiken, S, & Eagly, A. H.(1983). Communication modality as a determinant of persuasion: The role of communicator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241-256
- Chaiken, S.(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52-766.
- Cook, T. D., Flay, B. R.(1978). The persistence of experimentally induced attitude chang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1, pp. 1-5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Edwards, K.(1990). The interplay of affect and cognition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02-216.
- Festinger, L.(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wald, A. G.(1968). Cognitive learning, cognitive response to persuasion, and attitude change. In a. Greenwald, T. Brock & T. Ostrom(Eds.),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attitudes*(pp.148-170).Orlando, FL: Academic press.
- Katz, I., Wachenhut, J., & Hass, R. G.(1986).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5, 893-905.
- Leippe, M. R., & Elkin, R. A.(1987). When motives clash: Issue involvement and response involvement as determinants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69-278.
- Mackie, D. M.(1987). Systematic and nonsystematic processing of majority and minority persuasive commun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1-52.
- McGuire, W. J. & McGuire, C. V.(1996). Enhancing self-esteem by directed-thinking tasks: Cognitive and affective positivity asymmet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17-1125.
- Petty, R. E., & Cacioppo, J. T.(1981). *Attitudes and persuasion: Classic and contemporary approaches*. Dubuque, IA: Brown.
- Petty, R. E., & Cacioppo, J. T.(1984). The effect of involvement on responses to argument quantity and quality: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69-81.
- Petty, R. E., & Cacioppo, J. T.(1986).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SpringerVerlag.
- Zajonc, R. B.(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The Structural Differences of Attitudes Formed Through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Soo-Won Lee and Jun-Ho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structural differences of attitudes which has changed through central routes and peripheral routes. This study replicates Petty and Cacioppo' experiment(1984). The results make possible a further analysis of attitude structure. First, an attitude change through central route represents negative and positive attitudes as dual structure, whereas an attitude change through peripheral route represents them as bipolar structure. Second, attitude change through central route is determined by the descriptive meaning of attitudinal object, whereas an attitude change through peripheral route is determined by the evaluative meaning. The relationships of attitude change and attitude structure were discussed.